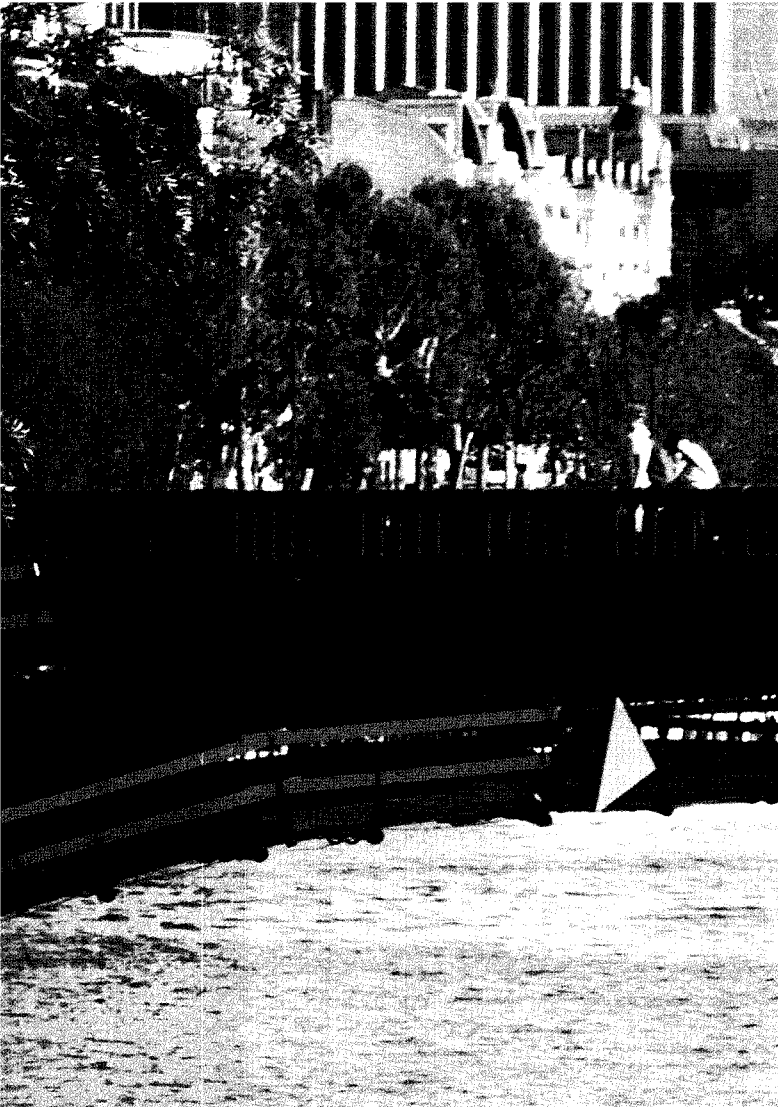


문화가 있는 쉼터

센강의 풍경



도시를 가르는 세계의 강들 가운데 유명세를 따져 보자면, 센강(Seine river)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명소로 꼽힐 듯 싶다. 물이 있는 풍경이야 워낙 운치가 있다지만, 좌우로 펼쳐진 고풍스러운 옛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센강에는 무언가 특별한 분위기가 스며 있다. 좁은 폭 때문인지 우리의 한강과 비교했을 때 왜소하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더욱 정겨운지도 모르겠다.

많은 이들이 센강을 찾는 이유는 파리의 명소들이 적지 않게 주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에펠탑이나 몽마르트 언덕, 루브르 박물관이나 노트르담 대성당처럼 센강도 하나의 명소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파리’라는 단어앞에 보통 ‘낭만의 도시’라는 수식어가 붙는데는 센강의 역할이 크다고 여겨진다.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다리들을 지나쳐 걷다보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띈다. 또 애완견과 함께 산책길에 나선 노부부, 강가에 자리를 펴고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젊은이들,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도 도시를 흐르는 강의 운치를 톡톡히 만끽하고 있다.

강을 따라 걷다 보면 금세 다리 하나를 만나는데, 다리가 끝나는

지점에는 반드시 노천카페가 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강 너머 풍경과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지 않더라도 카페는 그 나름대로의 볼거리로서 강과 조화를 이룬다. 파리의 먹자골목과 노트르담 대성당을 잇는 32m에 불과한 뽀띠퐁(Petit Pont)부터 400년의 가장 긴 역사를 지닌 폰네프(Pont Neuf)까지, 36개에 달하는 센강의 다리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00년대에 지은 다리들도 있지만 보통 200년 안팎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 중 가장 유명한 다리는 폰네프와 폰테자르(Pont des Arts)일 것이다. 영화 ‘폰네프의 연인들’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폰네프는 앙리 4세 때인 1607년 완공돼 수십 차례 대대적인 개조와 보수를 거쳐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재밌게도 영화는 실제 다리가 아닌 세트장에서 촬영됐다고 한다.

또 다른 다리 폰테자르는 우리말로 ‘예술의 다리’라는 뜻이다. 이 다리가 예술의 다리로 불리는 것은 상송의 가사를 쓴 자크 프레베르와 오스카 와일드, 카뮈, 사르트르와 시몬느 드 보부아르, 랭보와 베를렌느 등의 예술인들이 자주 찾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각종 전시회와 음악회가 열려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

